



**2시간 25분 부분일식 개적** 21일 오전 6시 23분부터 8시 48분까지 광주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달이 해를 가려 해의 일부분만 볼 수 있는 부분 일식이 관측됐다. 이번 부분일식에선 태양이 최대 80% 가량 가려졌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최근 일식은 2010년 1월15일 부분 일식이었으며, 관측 가능한 다음 일식은 4년 후인 2016년 3월 9일이다. (니콘 D3+24~70mm 렌즈·8분 간격 촬영 합성) /광주 남구 송춘보=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여수박람회 로봇관·국제관 등 일부 전시관 폼알데하이드 다량 검출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공기질 측정 공사 늦어져 기준치 3~4배 초과 관람객 두통·눈따가움 잇단 호소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 하 박람회) 전시관 곳곳에서 대표적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폼알데하이드(HCHO) 농도가 기준치를 최고 3~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관은 21일 현재까지도 전시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공사가 늦어져 개막 후에도 전시관 공기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해양로봇관 등지의 전시관에서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높게 검출됐고, 관람객 중 상당수가 두통과 눈따가움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박람회 조직위는 개막 10일이 남도록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21일 "조직위가 의뢰해 박람회 개막 직전 3차례 실시한 전시관 공기질 검사 결과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조직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은 지난달 23~24일, 26~27일, 지난 3~4일 등 옛새동안 국제관·지자체관·해양로봇관 등지 18곳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다. 전남도가 조직위에 발급한 '실내 공기질 검사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이들 18곳 모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은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14곳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유지 기준치(전시시설 100μg/m)를 초과했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국제관 중 대서양관(동관)이 471.63μg/m(이하 μg/m)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인도양관은 426.86, 지자체관인 광주시전시관 앞 408.96로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또 ▲지자체관 VIP 1룸 378.38 ▲대서양관(서관) 316.01 ▲지자체관 출입문 앞 305.07 ▲태평양관 244.86 ▲지자체관 VIP 2룸 232.51 ▲국제관 지하소연습장 201.98 ▲지하대연습장 130.79 ▲상황실 125.82 등으로 높게 나왔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많이 찾는 해양로봇관도 사정이 비슷했다. 심해연출관 233.55, 로봇생산가고 175.98, 엔딩관 144.73 등으로 조사를 한 3곳 모두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높았다. 함께 조사한 엑스포홀, 컨퍼런스홀, 여수항토음식점, VIP 식당 등 4곳은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다른 전시공간들은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다. 이처럼 폼알데하이드가 다량 검출된 것은 조직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시관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개막 무렵까지 곳곳에서 공사를 한 탓으로 풀이된다. 또 폼알데하이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지만 지난 11일 3차 예정연습 때 박람회장 4곳의 의료센터를 찾은 604명의 환자 중 107명이 두통을 호소했고, 이후에도 의료센터에는 참과자·복통·감기와 더불어 두통 환자가 가장 많아 근본적인 공기질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의 여수엑스포** ▶ 관련기사 3면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확정된 순간 TV 화면을 장식했던 여수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오늘 여수시가 펼치는 '자자체의 날'을 놓치지 마라. 그동안 박람회를 준비했던 여수 시민의 감동과 기쁨이 묻어 나오는 춤과 노래를 들려준다. 여수시와 자매도시인 러시아와 와니노시의 문화예술공연 등도 곁들여진다.

- ◇지자체의 날-여수시(천막극장·오후 2시)
- ◇국가의 날-오만엑스포홀·오전 10시
- ◇이스라엘 문화공연(해양광장·오전 11시30분 등 3회)
- ◇앙골라 문화공연(다목적홀·오후 2시)
- ◇오만 문화공연(엑스포홀·오후 3시)
- ◇특별기획공연-비틀캐비(이하 천막극장 오전 10시), 드럼셋(오후 4시), DJ DOC(오후 8시)

▲어제의 관람객수=3만2300명(이하 20일 오후 6시 현재)  
▲누적 관람객 수=37만7250명

## 영광원전 방사능 사고뎀 55만명 사망 451조 피해

영광 원자력발전소(이하 영광 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2011년)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년)와 같은 재앙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는 최대 55만명, 피해액은 45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환경운동연합,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조경대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당선자 등은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승준 관서학원대 부교수의 원전 사고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피해 시뮬레이션  
영향구역 최대 197km  
서울·경기도까지 피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영광 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규모의 재앙이 발생할 경우, 집단 피폭이 최대 74만명, 급성 사망이 5784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8708명, 유전 장애가 6563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광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 규모의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단 피폭이 최대 1249만6000여명에 이르고 급성 사망이 1만2228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55만692명, 유전 장애가 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피해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예상됐다. 영광 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 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4조6000억원에서 최소 17조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규모의 재앙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450조 9000억원에서 최소 209조9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됐다. 영광 원전 사고의 최대 영향 구역은 197km대까지 이르렀으며 방사성 물질은 서울과 경기도까지 덮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급성사망자 최대 4만 8000명, 암사망 85만명,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62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피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사망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으나 30km이내 지역의 피난 기간이 2~15일 걸린다고 가정하면, 방사성 물질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은 한평생 피해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의 실험에서는 원전 사고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기 위한 방사능 오염 제거작업이나 사고 수습비용,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나 폐기물 비용은 계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적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에서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선택이라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2012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 일시** 2012년 6월 10일(일) 오전 8:30
- 장소** 광주 상무시민공원
- 종목** 10Km / 5Km
-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수 [www.pinkcampaign.com](http://www.pinkcampaign.com)
-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손목 아대



주최 |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주관 | AMOREPACIFIC

후원 | 보건복지부·한국유방암학회·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서구청·KBS광주방송총국·광주MBC·KBC광주방송·광주일보·전남일보·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협찬 | HERA·케토톱·르까프